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KSD 한국예탁결제원
	보도	2019.1.30.(수) 조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이진수(02-2100-2880)	담 당 자	김은향 사무관 (02-2100-2883)	
	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장 정성철(051-519-1780)		이정욱 팀장 (051-519-1790)	

제 목 : 「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(LEI ROC*) 총회」 개최

*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

< 법인식별기호(LEI) 개요 >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시 서로 다른 법인명*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와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당사자 파악과 위험 노출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증폭**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* (예시)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기관인 ‘홍길동’사는 각종 금융거래시 ‘길동’, ‘Gil-dong’, ‘HGD’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
 - ** 시장참여자들이 금융거래상대방과 위험 노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(counterparty risk)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
 - 이에 따라 2011년 칸느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 위험 노출액 등 금융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법인에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도입에 합의
 - 법인식별기호(LEI; Legal Entity Identifier)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인별 고유 식별기호로서 법인식별기호 코드와 법인정보로 구성
 - 법인식별기호 코드는 20자리의 숫자와 영문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법인정보는 법인명·사업장 주소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포함
 - * (예)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식별기호 코드
-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-|---|---|----|---|--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--|---|---|---|
| 9 | 8 | 8 | 4 | 0 | 0 | 8 | R | R | M | X | 1 | X | 5 | H | V | 6 | 6 | 2 | 5 |
| 발급기관 코드 | | | | 예비 | | 법인 식별코드 | | | | | | | | | | 검증번호 | | | |
-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당국들은 2013년 규제감독위원회(ROC;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)를 설립하였으며 올해 1월 30일에 13번째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

1.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~31일 이틀간 서울에서 「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(LEI ROC*) 총회」를 개최할 예정

*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

- 규제감독위원회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서 67개 금융감독당국(46개국)과 4개 국제기구(FSB, IOSCO, CPMI, CGFS)가 회원으로 참여
- 이번 총회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총회('17년 1월) 이래 처음이자 한·중·일 중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, 금융위원회는 규제감독위원회가 설립된 '13년부터 지속적으로 총회에 참여해 옴

※ '18년 총회 주최: 사우디 통화청(2월), 프랑스 중앙은행(6월)

<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총회 개요 >

- ▣ 일시/장소 : 2019년1월 30일(수)~31일(목) / 서울 롯데호텔
- ▣ 참석자 :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회원기관 대표 약 50명*
 - * 34개 금융감독당국(23개국), 4개 국제기구(FSB, IOSCO, CPMI, CGFS)
- ▣ 주요논의 : ①법인식별기호 데이터 품질 제고방안, ② 정관 개정 등

- 총회 후, 한국예탁결제원* 주최로 「Meet the Market」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

*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 발급 서비스 개시('15.1월) 이래 국내법인에 약 650개의 법인식별기호를 발급·관리 중 ('18년말 기준)

- 「Meet the Market」에서는 규제감독위원회(금융당국)와 국내 금융기관(은행, 증권사 등)들이 함께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관련 국내외 동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

< Meet the Market 개요 >

- 일시/장소 : 2019년 1월 31일(목) 14:30~17:30 / 서울 롯데호텔
- 참석자 :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및 국내 금융기관(약 180명)
- 주요논의 : ①법인식별기호 시스템 소개, ②국내외 법인식별기호 도입 현황 등

2. 주요 논의내용 및 의의

- 이번 총회는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감독, IT, 지급결제 담당 전문가들이 참가하여
 - 법인식별기호 시스템과 관련된 세부 국제기준 마련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
- 우리나라는 현재 거래정보저장소(TR)*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·개정 중이며, 정확한 거래당사자 정보 집계를 위해 금융투자업자등이 거래정보 보고서 법인식별기호를 활용토록 할 예정

* 거래정보저장소(TR, Trade Repository):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을 보관·분석하는 중앙 집중화된 거래정보 등록기관

- 이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, 시장환경 급변시에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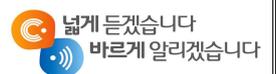
-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대한 전세계 금융당국의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인식별기호 사용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

※ 유럽증권시장감독청(ESMA)는 '18.7월부터 “No LEI, no trade” 원칙 하에 자본 시장에서의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모든 역내·외 기관에게 LEI 사용의무 부과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1. 법인식별기호 개념 (LEI; Legal Entity Identifier)

- 장외파생상품 위험 노출액 등 글로벌 금융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전세계 통용 법인별 고유 식별기호
 - (법인식별기호 코드) 총 20자리 숫자 및 영문으로 구성
 - * (예) 한국예탁결제원 : 9884 / 008RRMX1X5HV66 / 25
 발급기관코드 법인식별코드 검증번호
 - (법인정보) 법인명(또는 펀드명칭), 사업장주소, 사업자등록번호, 모회사·최상위 모회사 LEI코드 등

2.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시스템

- 46개국(67개 금융감독당국) 및 4개 국제기구(FSB, IOSCO, CPML, CGFS)가 참여하는 규제감독위원회* 운영 (한국: 금융위·한은이 '13년 가입)

* LEI ROC,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

- 국제 법인식별기호 재단(GLEIF*)이 전세계 법인식별기호 운영을 총괄하며, 재단의 정식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신청 법인에게 법인식별기호를 발급·갱신

* Global Legal Entity Identifier Foundation

- 전세계 법인식별기호 개수는 133.6만개로, 전년대비 40% 증가 ('18년말)
 - 국가별로는 미국 18.0만개(13.4%), 영국 13.4만개(10%), 독일 11.6만개(8.7%) 순으로 주로 미국 및 유럽에 집중
 - 국내 발급 법인식별기호는 총 1,056개로 전세계 대비 0.08% ('18년말)

* 예탁원 LEI 수수료 : 발급 10만원(유효기간: 1년), 갱신 7만원(유효기간: 1년)